

고규홍의 '나무생각'



나무는 장애물이 아니다

도시에서 나무는 '장애물'이 싫상이다. 우선 시각 장애인에게 그렇다. 흰 지팡이로 가능하며 걷다보면 불속 나타나는 나무에 부딪치기 일쑤다.

도시에는 처음에 나무가 살던 자리였다. 사람보다 먼저 자리 잡은 나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어냈다.

내 삶이 나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건 둘째 치고라도 바로 내 곁에 나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잠깐의 여유가 절실하다.

귀로 나무줄기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지나 그는 별다른 도움 없이 나무를 탐색했고 나무에 담긴 기운을 세심히 느꼈다.

시력이 온전한 사람들에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인들에게 특히 그렇다. 울울창창 뻗어난 나뭇가지가 산호등은 물론이고, 손님의 눈길을 끌어야 할 간판까지 가린다.

도시에 심며 나무가 곁에 있다는 걸 체감하는 건 쉽지 않다. 도시인의 삶이 그렇다. 이른 아침에 잠이 덜 깬 채로 직장에 달려가며 나무를 헤아릴 겨를은 없다.

나무를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시각 장애인과 한 해 내내 나무를 찾아다니며 손으로 코로 귀로 나무를 감각하고 교감하려 애썼던 적이 있다.

나무가 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무가 죽어가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장애물이 된 나무는 잘려나갈 운명에 처한다. 통글게 펼친 곡선의 나뭇가지를 사람의 취향에 맞춰 직선의 사각형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끝 부분만 겨우 남긴 채 나뭇가지를 통째로 잘라낸다.

의료칼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원장

기침으로 알아보는 여러 질병

에 치료 백신이 현재까지는 없다.

기침은 보통 바이러스로 인한 상기도 감염 후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한 기침일 가능성이 있다.

도 있으나 호흡 곤란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밤이나 새벽이면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침은 호흡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감기로 인한 기침인 경우 며칠 만에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지기도 한다.

또한 진단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흉부 CT를 찍어야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침 증상이 8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기침이라고 한다. 폐암·간질성폐질환·폐결핵 등 만성적인 기침을 일으키는 중한 질환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천식과 비슷하게 호흡 곤란과 기침 증상을 나타내고 주로 흡연을 하는 40대 이상에서 발생하나 흡연을 안 하더라도 직업적인 노출 등으로 생길 수 있다.

급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다. 감기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으로 콧물과 목통증, 열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와 함께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를 아급성 기침이라고 한다. 아급성

기침은 급성에서 만성까지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매우 다양한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고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

담배를 오래 피웠거나 기침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 가운데 흉부 방사선이 정상일 때는 폐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



김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장

명랑 소녀 덕선 씨의 취업 성공기

게 지켜온 자신의 목표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 또한 그녀에 대해 '감성이 풍부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낮가림이 심해서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지 못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먼저 말을 걸 만큼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진단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고 대답을 하며 웃는 덕선씨.

가정의 달인 5월, 제 나이의 또래들처럼 밝게 웃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어린 여고생이 취업을 위해 두 장의 추천서를 들고 우리 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우리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화장법이나 패션 등 그녀가 좋아할 만한 관심사를 찾아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덕선 씨는 지금 광주에 있는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그녀가 주로 하는 업무는 '환자 안내'다. 매일 모르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일은 지루한 두려움을 털어낸 그녀는 즐겁고 자신 있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 그녀는 요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은 체격의 앳된 모습을 한 18살의 지적 장애인 덕선 씨(가명). 생후 16개월 만에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이였다.

처음 만나는 또래 친구들, 아버지·어머니를 참여자들, 사람도 낯설고 상담 프로그램도 새로웠지만 덕선 씨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

3단계로 구성된 취업 성공 패키지는 장애인들의 잠재된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그들을 다양한 일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느 한 곳에는 발길이 닿질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조기 확정을

10년 이상 표류해 온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이달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무안공항 경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태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 기자회견회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밝혔다.

개항 10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은 당초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계획됐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조차 빈약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 농업 분야 제외시켜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업 분야가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 수출액 7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상에서 쌀을 포함한 농업·농촌 분야를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민들은 FTA 재협상으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농업·농촌 관련 분야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올 상반기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미국산이 물량·금액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데다 미국이 연간 6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각인시켜,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부문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미 FTA 이후 농축산물 대미 수입은 크게 증가해 지난해 7억 달러를 기

본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거부·배척·불매 운동'을 뜻하는 '보이콧'은 한 남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다.

無等鼓

집 인근에 비슷한 스타일의 생활 가구를 파는 업체가 세 군데나 있다. 전국에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한데, 최근 들어서 어느 한 곳에는 발길이 닿질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보이콧

이런데, 최근 들어서 어느 한 곳에는 발길이 닿질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해 난민들을 대거 고용하겠다고 선언한 스타벅스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반대자들은 스타벅스를 버는 걸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지난 1996년 미국 '라이프지'에 실린 한 '어린이'의 사진은 나이키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

국내에서도 치킨 업체, 카드 업체 등 업종을 불문하고 '갑질' 등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보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publication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ontact detail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